

광주교대 최수린 “바이애슬론 국대 선발...설렘·욕심 생겨”

토리노 동계대학경기대회 출전...“1년간 포기했던 만큼 책임감 커”

바이애슬론 한국 대표로 '2025 토리노 동계세계 대학경기대회'에 출전한 최수린(광주교대 1년)이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광주교대 24학번으로 입학해 교사라는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최수린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바이애슬론을 시작해 지난해 2월까지 제105회 전국 동계체전 여자고등부 18km계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여왔다.

이후 대학 입학을 계기로 학업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낸 그는 이번 대회 출전을 통해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스키 풀을 쥐게 됐다.

최수린은 “바이애슬론은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의미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놓게 됐는데 이번 기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다가왔다”며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안성초-안성중-안성고에서 바이애슬론 선수로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던 최수린이 교대 진학

을 결정한 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한 결과였다.

그는 “길게 운동해왔던 선수로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실업팀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수린은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는 수업이 끝나면 훈련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이 없었는데, 대학에서는 자유시간이 많아졌다. 게 달라진 점인 것 같다”며 “운동하면서 생긴 승부욕이 공부할 때도 나왔던 것 같다. 이번에 학점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선수 생활하면서 길러진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해내야겠다’는 욕심이란 승부욕이 공부할 때도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 알파인 스키를 시작으로 바이애슬론에 입문했던 그는 한 종목에 스키와 사격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최수린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스키장을 보내



준 것이 시작이었다. 스키가 너무 재밌어서 바이애슬론까지 하게 됐는데 총 쏘는 묘미가 있더라. 그게 너무 흥미롭게 다가와서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키는 주행뿐만 아니라 사격의 정확성까지 요구되다 보니, 한 번의 실수가 경기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 긴장감이 크다. 이런 점이 바이애슬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 바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해왔던 최수린에게 이번 대회는 기쁨만큼이나 책임감도 느끼게 했다.

최수린은 “나보다 훨씬 더 꾸준히 훈련해온 선수들과 함께하는 자라라 긴장도 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하는 부담도 있다”며 “대학에 들어왔을 때 바이애슬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스키를 타게 되어 설렘과 동시에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영건이 12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5 UIAA청송 월드컵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남자리드 결승에서 바일로 아이스큐브를 찍으며 방벽을 오르고 있다. <UIAA 제공>

이영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우승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간판' 이영건(노스페이스-전남 월출마당산악회)이 2025 청송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건은 12일 경북 청송군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5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남자 리드 결승에서 31.1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스위스의 시나 괴츠(Sina Goetz, 32점)가 우승자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8개국의 최정상급 아이스클라이머들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월드컵 리드 부문 랭킹 1위를 기록한 이영건은 올 시즌 첫 번째 대회인 청송 월드컵에서도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영건은 지난 시즌 청송 월드컵 2위, 스위스 사스페 월드컵 3위, 그리고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월드컵 피인식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영건은 “청송 월드컵 우승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다. 한국에서 받은 트로피라 더 감회가 새롭고 기쁘더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립공립공단 산악구조대를 그만두고 운동에만 전념해온 이영건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A형 독감에 걸려 컨디션 난조를 겪기도 했다.

이영건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이 또한 내가 다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최대한 몸 상태를 조절하면서 대회에 임했다”며 “이제는 완전히 운동선수로서만 성적으로 평가받게 된 만큼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책임감으로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2025년도 챔피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건은 오는 2월 열리는 전국 동계체전에 전남 대표로 나서 다시 한번 리드 정상의 위엄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페퍼스, 구단 최다승·최다 연승 기록...이길 때 마다 새 역사



16일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 4연승 도전

V리그 후반기에도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승 행진 중인 남녀 프로배구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매 경기 구단 최다 승과 최다 승점을 기록 중인 페퍼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1승을 거두며 '구단 최다' 3연승과 8승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세 시즌 동안 최다 5승과 최다 2연승에 그쳤던 페퍼스는 이번 시즌 심상치 않은 기세로 자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여자부 5위(8승 12패·승점 24)를 기록 중인 페퍼스는 '클러치백' 박정아와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테일러, 든든한 공격력의 이한비 등 선수단의 고른 활약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구사하고

있다.

페퍼스는 오는 1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1위 흥국생명(15승 5패·승점 45)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3위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13승 6패·승점 43)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정관장은 지난 10일 GS칼텍스 서울Kixx와 폴셋트 집전 골 3-2승을 거두면서 구단 최다 9연승을 기록했다.

'외인 쌍포' 반야 부키리치와 메가워터 퍼티위를 앞세워 전력을 끌어올린 정관장은 지난 2008-2009시즌에 기록한 8연승을 16년 만에 뛰어 넘으며 2위 현대건설을 승점 7점차로 추격 중이다.

'10연승'을 조준하고 있는 정관장은 14일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맞붙는다.

남자부 KB손해보험 스타즈도 '구단 최다 연승'이라는 새 역사를 노린다.

KB는 지난 12일 경민체육관에서 치른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경기에서 '2위' 대한항공 점보스(12승 8패·승점 40)에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하고 구단 최다 연승 타이틀 '6승'을 기록했다.

현재 3위에 자리하고 있는 KB(11승 9패·승점 31)는 양팀 최다 30득점을 올린 안드레스 비에나와 블로킹 4개를 포함해 19득점을 기록한 황경민을 앞세워 이남의 승자가 됐다.

KB는 막강 화력으로 구단 최다 '7연승'에 도전한다. KB의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6연승'으로 2009-2010, 2021-2022과 이번 시즌까지 세 차례 기록했다.

KB는 오는 16일 안방인 경민체육관에서 7위 OK저축은행 웃맨(4승 16패·승점 15)을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유도·사격 꿈나무대표팀, '스포츠 성지' 전남서 동계훈련



사격 꿈나무대표팀이 나주 국제종합사격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수·나주서 실전 훈련

유도와 사격 꿈나무대표팀이 전남을 찾아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일 전남을 찾은 유도 꿈나무대표팀은 오는 18일까지 여수 전남 유도장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다. 사격 꿈나무대표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나주 국제종합사격장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유도 대표팀 훈련에는 임희대 감독을 포함한 지도자 7명, 의무트레이너 1명, 유소년 선수 32명이 참가해 체력·기술·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테스트를 통해 잠재력 극대화에도 나선다.

사격 대표팀은 전남지도자 박희복을 중심으로 지도자 6명, 의무트레이너 1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선수 45명(권총 20명, 소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훈련은 기본기술, 사격 이론, 전자 장비 활용 훈련, 집중력 관리 등 실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전지훈련이 선수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실수 연발' 김주형, PGA 소니오픈 65위 추락

김주형이 새해 첫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에 그쳤다.

김주형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7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 69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4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김주형은 컷을 통과한 76명 가운데 공동 65위로 대회를 마쳤다.

작년 시즌에 우승 없이 페덱스컵 랭킹 59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김주형은 지난 연말 이벤트 대회인 하이어 월드 챔피언십과 그랜드 슬램 인비테이셔널에서 2위에 오르는 등 2025년 시즌 개막을

별렀지만, PGA 투어 강자의 위상을 되찾는 데는 실패했다.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선두를 3타 차까지 따라잡았던 김주형은 순위가 요동치는 '무빙데이' 3라운드 5번 홀에서 짧은 퍼트를 놓친 분을 잡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어진 6번 홀에서 OB를 내고선 클럽을 내동댕이친 김주형은 결국 4타를 잃고 공동 63위로 추락하며 우승 가능성을 날렸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김주형은 버디 5개를 잡아냈으나 보기 4개를 곁들여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김주형은 17일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출전해 자존심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